

이양하(李敷河)의 수필 연구

— 자전적 수필에서 명상적 수필로의 변화에 미친
외국문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 미 영*

[초 록]

수필과 평론을 망라한 이양하의 문학세계는 셸리와 랜더의 낭만주의, 윌터 페이지의 심미주의, 리처즈의 문예가치론, 아우렐리우스의 견인주의 철학 등,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 윤곽의 파악이 쉽지 않다. 수필로 한정해도 자전적 수필과 계몽적 수필, 명상적 수필이 혼재되어 있고, 이들 간은 교섭적이기보다 단절적이어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글은 이양하의 자전적 수필과 명상적 수필 사이의 연결점을 외국문학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살펴서 그의 문학세계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어머님의 기억」, 「송전의 추억」 등의 그의 자전적 수필들에는 결핍과 고독으로 점철된 내면이 그려져 있고, 「신록예찬」, 「나무」 등의 명상적 수필들에는 모럴로서의 고독이 심미적으로 예찬되고 있다. 전자에서의 결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주제어: 이양하, 수필, 결핍, 고독, 자연, 소극적 자유, 모럴
Lee Yang-ha, Essay, Solitary, Lack, Nature, Negative Liberty, Moral

벽중, 우울증, 고독감의 근저에는 슬픈 가족사가 자리해 있고, 후자의 바탕에는 부정적 인간관과 엄세적 세계관이 감지되며, 양자를 관통하는 주제는 ‘고독’이다. 이양하가 자전적 수필의 감상성에서 벗어나 명상적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모형을 추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페이터와 리처즈의 윤리의식, 아우렐리우스의 철학, 베비트의 인본주의의 도움이 컸고, 자신이 이룩한 영문학에서의 성취도 현실적인 힘이 되었다. 그의 고독은 그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인간과 현실로부터 일체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 즉 이사야 벌린이 말한 ‘소극적 자유’에 해당하는 가치이자 모럴인바, 자연은 고독한 주체가 ‘소극적 자유’를 누릴 최적의 환경으로 예찬되고 있다.

1. 여는 말: 이양하 수필의 혼종성

수필가 이양하(李敬河, 1904~1963)는 「신록예찬」과 「나무」, 「봄을 기다리는 마음」 등의 창작수필을 발표했고, 「페이터의 산문(散文)」, 「프루스트의 산문(散文)」 등 서구 에세이스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산문들을 써서 한국수필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이양하 수필집』(을유문화사, 1947)과 『이양하 제2 수필집 — 나무』(민중서관, 1964) 등 2권의 수필집에 62편의 수필을 남긴 과작(寡作)의 작가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수필집은 국정교과서가 없던 시절에 국어교재로 채택되기도 했고,²⁾ 대표작 「신록예찬」과 「나무」는 오랫동안 교과서에 수록되어 한 국수필의 대명사로 인기를 누려 왔다. 그런데 그의 수필들을 일독해 보면, 그가 영향을 받은 외국작가들의 성향이 매우 다양하며, 그가 쓴 수필

1) 이양하의 수필은 『이양하 수필집』(1947)에 21편, 사망 직후 간행된 『이양하 제2 수필집 — 나무』(1964)에 41편, 중앙일보사가 사후 발간한 『이양하 미수록 수필선』(1978)에 미발표작 5편이 전부이다.

2) 김우중(2005), 「수필계의 선구자 이양하」, 『이양하 수필선: 신록예찬』, 을유문화사, p. 5.

의 종류도 자전적 수필, 명상적 수필, 계몽적 수필 등으로 다채로워, 그 전체 윤곽의 파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낭만파 시인 셸리로부터 시 비평에 과학주의와 윤리적 가치론을 도입한 I. A. 리처즈, 유티주의자 월터 페이터, 『명상록』의 철학자 아우렐리우스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문학세계는 매우 혼종적이다.

이양하의 수필들을 내용 중심으로 보면,³⁾ (1) 개인사를 다룬 자전적 수필: 「어머니의 기억」과 「이렇게 젊음이 간다」 (2) 삶에 관한 관조적 인식을 담은 명상적 수필: 「신록예찬」과 「나무」 (3) 외국작가의 산문세계를 번역하여 소개한 수필: 「월터 페이터의 산문」과 「프루스트의 산문」 (4) 외국과 한국의 문화적 격차에 관한 수필: 「Korean Otiosity」와 「모든 것은 가난이 말해준다」, 「돌과 영국건축」 (5) 한국사회나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육자적 전언을 담은 계몽적 수필: 「지성과 가치」, 「무궁화」, 「나라를 구하는 길」 등이 있다. 이들은 크게 보면, 자전적 수필, 명상적 수필, 계몽적 수필로 묶인다. 계몽적 수필은 전언이 워낙 분명하고 문체나 사유에서 특별한 것이 없어, 결국 그의 수필의 본령은 자전적 수필과 명상적 수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주로 해방 이전에, 후자는 주로 해방 이후에 발표되었다.⁴⁾ 양자는 상호 교섭적이기보다 단절적인 편이고, 켜켜로 영문학적 지식들이 삼투되어 있어, 전체적 이해가 쉽지 않다. 일례로, 유티주의자 월터 페이터는 그의 문학적 출발점이며, 환상적이고 우주적인 정령성에 기반 한 낭만주의적 시인인 셸리의 영향은 자전적 수필들에 깊이 삼투되어 있다. 리처즈의 심리학적 가치론과 충동의 억제 속에 인고의 가치를 설파한 견인주의자 아우렐리우스의 사상,

3) 『나무』의 서문을 쓴 부인 장영숙은 이양하의 수필세계를 일제하 연희전문시절, 체미기간 전후, 서울대 재임기간 등으로 3분 했다. 장영숙(1994), 「머리말」, 『이양하 수필선』, 을유문화사, p. 4.

4) 유병석은 이양하의 수필을 해방 전에는 개인사적 이야기를 다룬 경수필이, 해방 후에는 사회적 관심사를 다룬 중수필이 중심이라 보았다. 유병석(1977), 「이양하 수필」, 『국어교육』, 1977, p. 22.

베비트의 인본주의도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 이런 까닭에 김윤식은 이양하의 수필을 두고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의 이상한 병립”이라 비판하기도 했다.⁵⁾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이양하 수필에 대한 평가는 극찬과 비판을 오갔다. 그의 수필을 한국수필의 정전이라 고평하는 연구자에는 임중빈, 김우창, 송명희 등이 있고, 그런 평가에 회의적인 연구자로는 김윤식, 정부래, 김춘식 등이 있다. 먼저 예찬한 쪽을 보면, 임중빈은 이양하를 ‘자연 시인으로 명상의 산책자’라 칭하고, 그의 에세이는 고독의 산물이자, 기쁨의 진미, 환희의 송가로서, 발상법이 비교(秘敎)주의적이며, 월터 페이터의 명문을 능가하는 심미적 성찰의 눈길이 번뜩이는 명문이라고 극찬했다.⁶⁾ 김우창은 이양하의 삶과 문학적 감수성이 유기적 입체를 이룸을 고평했고,⁷⁾ 송명희는 문체가 주지적이며 유려하다는 찬사를 보냈다.⁸⁾ 반면, 부정적 평가를 한 김윤식은 이양하의 수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표피적 독해의 결과이며,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해서 「신록예찬」이나 「나무」를 수필의 정전으로 간주하는 자들은 수필의 본질이 산문임을 몰각하고 시적 표현을 수필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양하 수필의 본질은 「신의」(新衣)라는 작품에 잘 드러나 있는바, 이 글에서 작가는 생활을 관찰하여 설명하는 데 급급할 뿐, 어떤 관념적 사유나 감각적 예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록예찬」에서 ‘신록’은 에고이즘과 분리되지 않는 ‘고독’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서, 고독과 에고이즘을 이양하 수필의 핵심으로 들었

5) 김윤식(1984), 「경성제대 영문학과와 낭만주의」,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I』, 일지사, pp. 329-354.

6) 임중빈(1976), 「이양하 론」, 『신록예찬』, 범우사, pp. 7-19.

7) 김우창(1984), 「이양하의 수필세계」, 『수필공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pp. 116-117.

8) 송명희(2009), 「이양하의 수필세계」, 『이양하 수필전집』의 해설, 현대문학사, pp. 393-407.

다.9) 그는 또 이양하의 리처즈 수용의 한계로 낭만주의적 세계관과 신고전주의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을 짚기도 했다.¹⁰⁾ 한편, 정부래는 의식적으로 미문이나 명문을 추구한 흔적이 역력한 이양하의 수필들은 그가 수필을 기교적인 글로 오인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¹¹⁾ 최근 『이양하 수필선집』을 엮어낸 김춘식은 「해설」에서 이양하의 수필은 주지주의적 미문주의와 금욕주의적 인생관을 추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변잡기적이고 「신록예찬」은 현실 외면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내내 이양하가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¹²⁾

이양하의 수필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는 그의 문학세계가 갖는 혼종성과, 연구자들이 그의 문학의 일면만을 분석한 것에 기인한다. 이 글은 수필에 한정하되, 특히 이양하의 자전적 수필과 명상적 수필 간의 연결성을 작가의 생애와 외국문학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살피려 한다. 이는 그의 수필세계, 나아가 문학세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다.

2. 자전적 수필에 드러난 결핍과 감상

이양하에 관한 많은 글들은 첫머리에 그의 고학력을 거론하곤 한다. 1904년 평안남도 강서 출신인 그는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에 도일(渡日)했다. 교토 소재 제삼고등학교(第三高等學校)를 1927년

9) 김윤식(1978), 「고독과 예고이즘」,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pp. 336-344.

10) 김윤식(1984), pp. 329-354.

11) 정부래(1991), 「이양하 수필 연구」, 『청어람문학』, 4호, p. 462.

12) 김춘식(2017), 「해설 — 지식을 탐구하는 정신과 가치를 판단하는 지혜의 균형」, 이양하 저, 김춘식 편, 『이양하 수필 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p. 224.

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동경제대 영문과에 진학하여 1930년에 졸업했다.¹³⁾ 다시 교토로 간 그는, 교토제대 대학원 영문학 석사과정을 1931년에 수료했다.¹⁴⁾ 이런 고학력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선 흔치 않은 것이었다.¹⁵⁾ 도쿄제대 영문과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그¹⁶⁾는 조선어, 일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하고 쓸 수 있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인재였다. 대학원 수료 후 그는 모교인 제삼고등학교(第三高等學校)의 도서관 사서로 잠시 일했다.¹⁷⁾ 거기서 틈틈이 I. A. 리처즈의 『시와 과학』을 번역하였고, 이 책은 일본 겐큐사(연구사)에서 1952년에 출간되어 일본 영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무렵 그는 일본 영문학 학술지에 논문 「페이터와 인본주의」(『영문학연구』 제13권 2호, 1933. 4.)을 발표했다. 1934년, 연희전문의 강의를 맡게 되어 귀국한 그는, 연희전문의 교수를 거쳐 1945년에 경성제대 문과교수, 195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1954년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고, 1958년에는 서울대 문리대 학장서리가 되었다. 수필가로 알려진 그는 1943년에는 소설 「백조의 노래」를, 1962년에는 시집 『마음과 풍경』(민중서관)

13) 정진숙(1997), 『을유문화사 50년사』, 을유문화사, p. 74.

14) 김진희(2017. 8.), 「일본 『英文學研究』에 실린 이양하의 첫 비평: 李駮河, 「批評紹介: 工藤好美譯, 『ウォオルター・ペイター短篇集』」, 『英文學研究』 제11권 2호, 1931. 4.」, 『계간 서정시학』, 27(3), p. 186.

15) 김윤식은 동경제대 영문과 출신의 이양하를 ‘직계적 상상력’,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의 김기림을 ‘방계적 상상력’으로 보고 분석을 시도했다. 김윤식(2008), 「문학사의 라이벌(5) — 이양하와 김기림: 제국대학 영문학의 직계적 상상력과 방계적 상상력」, 『문학의 문학』 제5호, pp. 328-376.

16) 최정수(1964), 「이순의 독백」, 정병조 편, 『이양하 교수 추념문집』, 민중서관, p. 212(이하 이 책은 『추념문집』으로 표기한다).

17) 그는 기실 도쿄제대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나 조선징이라는 이유로 수석 졸업자가 받는 금시계를 받지 못하고 삼고 교사도 되지 못했다. 차석을 한 삼고 교장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 금시계도 받고 삼고 교사도 되는 수석의 영예를 누렸기 때문이다. 이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삼고 교장이 그에게 삼고 도서관 사서 자리를 앞선해 주었다. 최정수(1964), p. 212.

도 출간하기도 했다. 김윤식은 그가 너무 일찍 연희전문에 취직되어 귀국한 뒤 조선에 계속 머문 사실을 못내 아쉬워한다. 영문학자로서 그가 일본에서 좀 더 학업을 어어 갔거나, 영문학의 본고장인 영국이나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영문학을 연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다. 그만큼 일제강점기에 그의 학력과 실력은 남다른 것이었다.¹⁸⁾

이양하의 동경제대 영문과 졸업논문은 「The Inner life of Marius the Epicurean, with Reference to Walter Pater's view of life」(1930)로, 월터 페이터의 관점에서 본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의 내적 편력에 관한 것이었다. 문단 데뷔작도 월터 페이터의 단편집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비평을 곁들인 「批評紹介: 工藤好美譯」, 「ウォオルター・ペイター短篇集」으로, 이는 그가 교토대학원에 다니던 1931년 4월, 일본의 학술지 『영문학연구』(제11권 2호)에 실렸다. 1933년에는 모리 로쿠로(森六郎)의 도움을 받아 「페이터와 인본주의」(『영문학연구』 13권 2호)을 같은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렇듯, 1930~1933년경 일본유학생 이양하의 관심은 온통 월터 페이터에 집중되어 있었다. 청년기의 이양하가 왜 하필 월터 페이터에 빠져들었는지는 그가 쓴 「페이터와 인본주의」에 잘 드러나 있다. 거기서 그는 페이터의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에 그려진 마리우스의 성장과 변화에 깊이 공감하면서 스스로를 마치 마리우스에 등치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무엇보다도 이는 마리우스가 이양하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모친상을 당했고, 이후 고독과 방황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유학을 간 도시에서 지적 추구라는 학업적 성취에 눈을 떠, 이로써 그 동안의 방황을 종식시킬 나름의 길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양하의 자전적 수필 「젊음은 이렇게 간다」와 「어머니의 기억」 등을 종합해 보면, 그의 유년기는 한마디로 ‘결핍’의 시기였다. 친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산욕열에 시달리다 그가 대여섯 살 무렵에 돌아가셨다. 따

18) 김윤식(2008), p. 351.

라서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공백, 그 자체’였다. 그에겐 “친어머니의 모습도 음성도, 안겨서 젖을 먹던 기억조차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의 장사를 치르던 한여름 날, 칙 얽힌 언덕 길을 올라가던 상여에서 풍기던 시체 썩는 ‘이상한 냄새’가 유일했다.¹⁹⁾ 「봄을 기다리는 마음」, 「어머님의 기억」, 「길에 관하여」, 「나라를 구하는 길」, 「서울의 도시미」 등에서 그는 자신이 냄새에 매우 예민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연희전문의 동료교수 고흥근도 그가 유독 예민한 후각의 소유자였음을 증언하고 있다.²⁰⁾ 심지어 그는 “나는 가을이고 겨울이래야 평생의 내 자신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²¹⁾ 봄과 여름을 싫어했는데, 이 역시도 더러운 악취 때문이었다.

이양하는 ‘악취’ 못지않게 ‘훈탁한 먼지’도 싫어했다. ‘먼지’에 대한 혐오는 큰어머니와의 기억에 닿아 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가 앓아누운 탓에, 그는 큰어머니 손에 이끌려 젖동냥으로 양육되다가 곧 젖어머니에게 맡겨졌다. 이후 그는 젖어머니와 큰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자랐다. 큰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가 미나리를 파헤치느라 흙투성이가 되어 놀던 무렵, 큰어머니가 지팡이를 찾아 오셔서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며 흙이 묻은 그의 더러운 옷을 타박하셨던 장면이 고정되어 있다. 당시를 회고하는 글에서 그는 큰어머님의 호통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달려가 (큰어머님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얼굴을 쳐다보며 먼저 화해를 청하”였다고 한다. 구십 평생 자식이 없으셨던 큰어머니는 그의 뇌리에 늘 자신을 야단치시던 분으로 각인되어 있다. 마흔 살의 이양하는 큰어머님께 먼저 화해를 청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에 눈물이

19) 이양하(1964a), 「어머님의 기억」, 『나무』, 민중서관, p. 24; 송명희 엮음(2009), 『이양하 수필 전집』, 현대문학, p. 183(이하 송명희가 엮은 『이양하 수필 전집』은 『전집』으로만 표기함).

20) 고흥근(1964), 「연희시절의 이양하씨」, 『추념문집』, p. 218.

21) 이양하(1947a), 「봄을 기다리는 마음」, 『이양하 수필집』, 을유문화사, 『전집』, p. 81(이하 이 책은 『수필집』으로만 표기함).

핑 돈다.”라고 말한다.²²⁾ 큰어머니가 질색해 하시던 ‘흔탁한 먼지’는 친 어머니를 상기시키는 ‘더러운 악취’와 함께 그가 평생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었다. 그는 악취와 먼지에 대해 ‘두려움’마저 느꼈다고 적고 있다. 동경제대 영문과 동창인 조중휘가 이양하를 한마디로 “몹시 깨끗한 사람”이라 평한 것²³⁾도 이렇듯 유별난 그의 결벽증 때문이었다.

이양하에겐 세 분의 어머니가 있었다.²⁴⁾ 친어머니와 큰어머니 외에 젓 어머니가 더 있었다. 집에서 좀 떨어진 젓어머니네로 보내진 젓먹이 이양하는 그 집의 가난한 단칸방에서 젓어머니네 여러 자녀들과 섞여 ‘잘 울고 자주 보채는 아이’로 자랐다. 얼굴이 얇았던 젓어머니는 따뜻한 성격(性情)의 분이셨지만, 발일까지 해야 하는 가난한 농촌아낙이어서 자꾸 울며 보채는 어린 그를 때론 ‘성가셔’ 하셨다. 하여 “이애 이렇게 보채서야 어떻게 기르겠노. 어서 도루 갖다주소.”라는 젓어머니의 푸념은 어린 이양하의 가슴에 ‘설운 기억’이 되어 꽃혔다.²⁵⁾

그를 ‘성가신 존재’로 여긴 것은 젓어머니뿐이 아니었다. 그의 친아버지는 친어머니의 상여가 나가던 날 몹시 우셨지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새 장가를 드셨고, 그 때문인지 어린 그를 성가셔 하셨다. 이양하는 자전적 수필들에서 친아버지가 새로 맞은 부인을 ‘집의 아주머니’라 칭한다. 이로써 그는 세 어머니와 그 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집의 아주머니’와 잔치하던 날, 즉 아버지가 새로 장가를 가던 날, 젓어머니네에서 친가인 아버지네로 돌려보내진 그는 발버둥을 치며 울어, 결국 그는 다시 젓어머니네로 가게 되었다. 자전적 수필들에서 그는 평생 친아버지와 살갑게 지내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학창시절

22) 이양하(1947b), 「젊음은 이렇게 간다」, 『수필집』, 『전집』, p. 98.

23) 조중휘(1964), 「고(故) 이양하 군의 일면」, 『추념문집』, p. 214.

24) 이양하(1964a), 「어머님의 기억」, 『나무』, 민중서관, pp. 24-31(이하 이 책은 『나무』로만 표기함).

25) 이양하(1947b), p. 99.

그가 학교에서 뭔가 성취해 돌아와도 친아버지는 마땅찮아 하셨다. 친아버지는 그가 평양고보를 졸업한 뒤 보통학교 훈도가 되길 원하셨다. 이양하는 친아버지에 대해 “나를 교육하시는 데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애쓰시고, 다음에는 뜻과 같지 아니한 결과에 절망하시고 성가셔 하시고, 마침내는 바라보이는 나의 다행하지 못한 장래에 체관하시고 동정하여 주시던 아버지”라고 서술하고 있다.²⁶⁾ 자신을 성가셔 하셨던 친아버지도 악취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늙으신 아버지가 입원하였을 때, 방학을 맞은 그가 잠시 아버지를 간호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이 무더운 날 사람의 입김과 갖은 체취로 질식할 듯한 기차, 전차 속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시달리고 나서, 다시 온갖 환자의 고달픈 호흡이 온 방안을 채우고 있는 침울한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일이 너무도 싫었다고 말한다.²⁷⁾ 이렇듯 그의 수필에서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는 모두 그에게 ‘악취’의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양하의 결벽증이 악취와 먼지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 그의 우울증과 고립감은 초혼의 실패와 그 후의 외로운 생활에서 배태된 것으로 보인다. 이양하는 평양고보에 재학 중이던 1920년에 만 16세의 나이로 성급하게 동정적 초혼을 치렀는데,²⁸⁾ 그 초혼은 곧 쓰라린 아픔으로 끝이 났다. 이양하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는 “반생을 그르치는 큰 치명상”이 되었고, 아내를 간선해준 젓어머니에게는 “평생 풀 길 없는 큰 한”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⁹⁾ 그 일 이후 젓어머니는 그를 못마땅해 하셨고, 젓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불편해졌다고 한다. 그가 장영숙과 재혼한 것은 만 53세의 일이니, 그때까지 이양하는 청년기와 장

26) 이양하(1947b), p. 100.

27) 이양하(1947c), 「아버지」, 『수필집』, 『전집』, p. 61.

28) 배수찬(2010), 「이양하(李敷河)의 글쓰기 환경 연구 — 교육체험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 『작문연구』 10호, p. 436.

29) 이양하(1964a), p. 30.

년기의 대부분인 약 37년간을 혼자 살았다. 그런 그가 고독에 익숙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연희전문 교수시절 그는 30대와 40대의 꽃다운 나이였지만, 고흥군은 당시가 “그의 일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불평에 가득 찬 메마른 시절”이었다고 증언한다. 당시 와우산 기슭의 산장집에 살던 이양하는 옆집 농가에 기식을 하였는데, 고흥군이 찾아가면 그는 대낮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매사에 불평이 많았다고 한다.³⁰⁾ 동창 권중휘에 따르면, 그 시절 이양하는 “술도 담배도 않고 우시계(우스개)나 허튼 소리도 않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양하와 함께 몇 달 동안 동래온천장에 방을 구해 함께 지냈는데, “영한사전편찬으로 더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그도 어떤 면에서 만의 접촉이었다.”라고 한정짓고 있다.³¹⁾ 또 그는 사망 직전의 이양하는 “우이동에 가서 집을 마련하고 주말로만 시내에 들어올 정도로 조용히 살았으면 했다. 친구들과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리라는 염려는 없었다. 고독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양하는 결국 영한사전의 인세로 우이동에 집을 마련했지만, 그 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 제자 장덕순조차 그를 “고독을 물 마시듯이 하는” 선생님이로 기억하고 있으니,³²⁾ 연희전문 시절 이양하는 외롭다 못해 고독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³³⁾ 통상 사람은 유아기와 유년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유대감을 통해 타자나 세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을 획득한다. 그런데 이양하는 불행히도 친모와 친부의 사랑을 거의 체험하지 못했고, 친모 사망 후에는 친부와의 관계도 매우

30) 고흥군(1964), 「연희시절의 이양하씨」, 『추념문집』, pp. 217-220.

31) 권중휘(1964), 「고 이양하 군의 일면」, 『추념문집』, pp. 214-215.

32) 장덕순(1964), 「스승의 이모저모」, 『추념문집』, p. 230.

33) 이는 이양하의 시 「promenade sentimentale」(『마음과 풍경』, 민중서관, 1962, p. 49), 「내 차라리 한 마리 부엉이가 되어 외롭고자 하노라」(같은 책, p. 103) 등에서도 확인된다.

서먹해졌다.³⁴⁾ 친모를 대신해 그를 거두어준 큰어머니는 회초리를 든 채 꾸짖기만 하는 존재였고, 할 일이 너무 많았던 젓어머니는 그를 성가셔 했다. 너무 이른 나이에 했던 초혼은 그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 즉, 이 양하에게 있어 가족은 결핍과 고독의 발원지이자, 결벽증과 우울증의 근원이었다.

평양에서 포목점을 하던 젓어머니의 아들집에 기숙하며 평양고보를 마친³⁵⁾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부친이 그의 유학에 반대하자, 혼자만의 판단으로 도일하였다. 초혼에 실패한 그는 이역만리에서 학업적 성취만을 의미 있는 일로 여기며 12년간이나 고독한 유학생생활을 이어갔다. 이 무렵에 외로운 청년 이양하의 마음을 온통 빼앗은 책이 바로 월터 페이지의 『쾌락주의자 마리우스』(Marius the Epicurean: His Sensations and Ideas)였다. 이 책은 월터 페이지(Walter Horatio Pater, 1839-1894)가 1885년에 출간한 역사철학적 소설로,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절을 배경으로 ‘마리우스’라는 청년의 정신적 편력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당시에 일본에 들어와 있었고, 쿠도 요시마에 의해 1926년에 일역도 되었다. 그 무렵 일본 영문학계는 낭만적 흐름이 지배적이었는데,³⁶⁾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태주의자 월터 페이지의 『쾌락주의자 마리우스』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양하도 거기에 매혹된 것이다.

「교토기행」에서 이양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꽃다운 청춘기로 삼고 문과생시절을 꼽고 있다.³⁷⁾ 「외국문학 전공의 변(10): 페이지의 문예부흥」에서는 월터 페이지를 처음 알게 된 삼고시절, 그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쓰고 있다.³⁸⁾ 『쾌락주의

34) 정태귀(2008), 「이양하 수필의 토포필리아 연구」, 부경대 석사논문, p. 22.

35) 최정수(1964), p. 210.

36) 김진희(2017.8), p. 188.

37) 이양하(1947d), 「교토(京都)기행」, 『수필집』, pp. 139-164.

38) 이양하(1939), 「외국문학 전공의 변(10):페이지의 문예부흥」, 『동아일보』, 1939.

자 마리우스』의 「지식의 나무」라는 장(章)을 보면, 이양하가 이토록 페이터에 빠져들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마리우스는 매우 어린 나이에 모친상을 당했고, 그 사건은 소년 마리우스를 회의주의자의 길로 이끌었다. 하지만, 수도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건한 분위기의 집안을 벗어나 ‘피사’라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와서 본격적으로 학업에 임하게 된 마리우스는 굉장한 경쟁심의 발동을 느끼게 된다. 모친상 후 그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삶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허무주의자가 되었지만, 동료들과의 ‘지적’인 경쟁에서만큼은 남다른 명성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낀 것이다. 지적인 명성만이 허무주의에 빠진 자신에게 쾌락임을 깨달은 그는, 노예 출신이지만 지력이 빼어난 플라비안과 우정을 나누면서 점차 사물을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갔고, 지적 쾌락주의자가 되어갔다. 결과적으로 모친상은 마리우스가 학업적 성취를 통해 야망과 포부를 쫓게 만든 계기가 되었는데, 이양하는 이런 마리우스에게서 쌍둥이형제 같은 친화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유년기에 겪은 모성의 극심한 결핍으로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긴 이양하는 월터 페이터가 창안한 인물 마리우스라는 타자에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³⁹⁾ 모친상 이후 그가 겪은 고통의 극심함은 「봄밤」의 잦은 악몽 체험이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의 “무표정한 가없는 인간”, “큰 환멸, 큰 설움을 깨닫는 끝에 안도할 것을 잃고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하는 외로운 마음의 신음” 등의 서술이나 묘사에 잘 나타난다.⁴⁰⁾ 이런 유년기의 결핍과 불안은 「실행기(失幸記)」, 「교토키행」에 이르면 성년기의 고독과 결벽증, 우울증으로도 변주된다.

11. 18, p. 4.

39) 이진숙(2018. 8.),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윤리를 통한 자기 성찰 교육의 가능성 모색」, 『사고와 표현』 11(2), pp. 245-250.

40) 이양하(1947a), p. 83.

이양하는 ‘마리우스’의 모친상과 그로 인한 허무의식에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한편, 마리우스가 가진, ‘시적 질서’로서의 미(美)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심미주의적 태도에도 침윤되어 갔다. 월터 페이터는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의 「상상의 초상」이란 장(章)에서 인간의 영혼과 물질적 환경 사이의 조화는 마치 “완전무결하게 연주된 음악과 같”은데, 인간의 ‘사고(思考)의 집’은 그의 두뇌가 구성되는 과정인 어린 시절에 겪은 자그마한 일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⁴¹⁾ 사물에서 시적 질서를 읽어내는 것을 미의 핵심으로 간주한 마리우스는 월터 페이터의 유태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그는 “볼 수 있고 감촉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물의 아름다움을 사물 속의 진실 되고 절대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다.⁴²⁾ 이는 그를 이성적이기 보다 감각적으로 발달시켰다. 마리우스가 지적 성장이라는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끝내 세상을 감지하는 시적(詩的)인 자세⁴³⁾를 바꾸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겪은 모친상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년기의 마리우스에게 있어 ‘지력’의 향방은 ‘시적 질서’의 추구였고, 이는 유독 감각적인 방향으로 흘러 그는 특별히 색채와 형태에 예민한 소년으로 자랐다.⁴⁴⁾ 이양하 역시, 색채에 남달리 예민했는데, 「신의」란 수필을 보면, 새로 맞춘 양복의 옷감이 보랏빛과 갈색으로 부조화를 이루자 그는 이내 속을 끓이며,⁴⁵⁾ 「나의 소원」에서는 본정 오자와 상점에서 본 연둑빛의 시미즈야키 화병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⁴⁶⁾ 또한 「교토기행」에서는 교토의 꿈과 사랑이 담긴 연둑빛과 신라 천년의 아름다움을 꿈꾸게 하는 연둑빛에 대한 유려한 감각을 한껏

41) W. H. Pater, 이성호 역(1982a), 「상상의 초상」, 『페이터의 산문』, 범우사, pp. 61-67.

42) W. H. Pater, 이성호 역(1982a), p. 62.

43) W. H. Pater, 이성호 역(1982b), 「지식의 나무」, 『페이터의 산문』, pp. 13-14.

44) W. H. Pater, 이성호 역(1982b), pp. 16-25.

45) 이양하(1947e), 「신의」, 『전집』, pp. 25-27.

46) 이양하(1947f), 「나의 소원」, 『전집』, pp. 30-31.

뿔내고 있으며,⁴⁷⁾ 「송전의 추억」에서는 쪽빛 송전 바다와 오렌지 빛 오매리 뒷산 모서리에 대한 묘사를 색채의 대비 속에 절묘하게 제시하고 있다.⁴⁸⁾

일본 유학시절 이양하는 P. B.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의 서정성 짙은 낭만주의 시에도 깊이 공감하였다. 그의 수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영국시인은 P. B. 셸리이다. 「글」에서 그는 자신은 노둔하여 창작에 필요한 천재성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셸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글을 쓴 사람, 종달새같이 노래하고 구름같이 자유로웠던” 시인이라며 예찬하고 있다.⁴⁹⁾ 「셸리의 소리」에서는 학창시절 어느 가을날 옥천 천변에 산책을 갔다가 친구가 애독하던 셸리의 시를 들은 일화를 소개한다. 「젊음은 이렇게 간다」에서는 “내 사랑하는 셸리와 한가지로 낮이나 밤이나 영 다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서러워하는 것일까.”라며 셸리와 동면 상련하고 있다.⁵⁰⁾ 윤동주는 연희전문에 다니던 1938년경, 이양하 교수로부터 셸리의 낭만주의 시를 배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⁵¹⁾ 이양하가 일본에서 공부할 당시, 문학부가 독립된 학과로 편성되어 있던 대학은 도쿄 제대와 교토제대뿐이었는데, 당시 두 대학의 영문과는 낭만주의 시문학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국권을 상실한 조선의 문학청년 정지용, 이양하, 최재서는 “청춘을 탕진할 수 있는 절대성의 황홀경”으로 당시 영시의 낭만적 미학에 깊이 침윤되었는데,⁵²⁾ 이는 정지용은 신비주의 시인 블레이크로, 이양하는 유태주의자 월터 페이터로, 최재서는 정령적 낭만주의 시인 셸리로 졸업논문을 썼음에서도 확인된다.⁵³⁾

47) 이양하(1947d), 「교토기행」, 『전집』, p. 124.

48) 이양하(1947g), 「송전의 추억」, 『전집』, pp. 130-132.

49) 이양하(1947h), 「글」, 『전집』, p. 37.

50) 이양하(1947b), p. 105.

51) 김우중(2005), pp. 6-7.

52) 김윤식(2008), pp. 340-341.

P. B. 셸리는 바이런, 키츠와 함께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3대 시인으로 서른에 요절하였다.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초혼은 곧 실패로 끝이 났다. 이는 이양하의 첫 결혼을 떠올리게 한다. 셸리의 두 번째 아내는 판타지소설 『프랑켄슈타인』(1918)의 작가인 메리 셸리(Mary Shelley)였다.⁵⁴⁾ 셸리는 『서풍에 부치는 노래』(Ode to the West Wind, 1819), 『종달새에 부처』(To A Skylark, 1820) 등의 서정시집들을 남겼는데, 그의 시들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이면에는 관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감춘 작품들로 평가되고 있다.⁵⁵⁾

이양하와 셸리의 만남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으로 시작되었다. 셸리의 시를 낭독하는 친구의 음성과 바람 소리가 뒤섞여 그에게는 죽은 셸리의 음성으로 들린 것이다.⁵⁶⁾ 이 순간을 그는 “셸리의 심경을 체험하고, 셸리의 詩魂에 入參하는 고귀한 순간”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⁵⁷⁾ 그날 친구가 낭독해준 셸리의 시는 꽃다운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교적 단순한 애상적인 서정시였을 뿐인데, 그가 환상적이고 충격적인 방식

53) 김윤식(1981), 「이양하 론」, 『(속)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p. 265.

54) 메리 셸리는 사회개혁론자 윌리엄 고드윈의 딸이었다. 고드윈은 무정부주의자이며 자유사상가로 셸리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셸리의 생애는 관습에 대한 반발, 이상주의적 사랑, 자유에의 동경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옥스퍼드 시절 그는 무신론에 관한 팸플릿을 발간하여 퇴교 조치를 당했고, 10대 때 ‘해리엇’이라는 16세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스승의 딸 메리와 사랑에 빠졌고, 이를 알게 된 해리엇이 투신 자살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메리와 정식 결혼을 한 그는 바이런과 교우하면서 유럽을 여행했다. 해리엇이 죽은 해에 그는 서사시 『고독한 영혼Alastor』(1816)을 출간했다. 그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다. 그를 화장한 메리는 그의 유고시집 『Posthumous Poems』(1924)을 출간했다. P. B. 셸리, 정광식 편역(1994), 「연보」, 『서풍의 노래』, 선영사, pp. 116-117.

55) P. B. 셸리, 강대건 역(1991), 「해설 — 비전의 시인」과 「연보」, 『시인의 꿈』, 민음사, pp. 155-164.

56) 이양하(1947i), 「셸리의 소리」, 『전집』, pp. 88-91.

57) 이양하(1947i), p. 93.

으로 셸리를 만난 데에는 당시 그의 우울한 처지, 즉 초혼에 실패한 경험이 원경에서 작용하였고, 또 ‘시적 질서’이자 ‘진리’인 미를 담아낸 아름다운 시를 쓰고자 하였으나 그런 천재성을 갖추지 못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처지가 근경에서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글 한줄 쓰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그는 당시 자신의 글을 “땅을 기는 글, 차라리 배밀이를 하는 글”이라 표현하였다.⁵⁸⁾ 그런 그에게 분방한 성격과 천재성, 자유로움을 지닌 셸리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종달새가 노래하듯 자유롭게 얘기하면 그것이 곧 사물의 아름다움에 다가가는 ‘시적 질서’가 되는 셸리에 대한 칭송과 동경은 「젊음은 이렇게 간다」, 「셸리의 소리」,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양하는 셸리의 시 「A lament비탄(悲嘆)」을 직접 번역했다. 이 시의 주제는 “너의 꽃다운 청춘 언제 또다시 올까나/영영 다시 아니 오리라!”라는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⁵⁹⁾ 『서풍의 노래』에 수록된 시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에서 셸리는 미(beauty)의 정령이 사라진 세상은 공허한 눈물의 계곡인 바, 오직 미의 정령만이 “밤바람에 전해지는 음악처럼/또는 깊은 밤의 시냇물 위를 비추는 달빛처럼/인생의 설레는 꿈에게 은총과 진실을 주리라”라고 노래하고 있다.⁶⁰⁾ 또 “햇살이 지구를 포용하고 달빛이 바다에 입맞춤하는데/이 모든 입맞춤이 무슨 소용 있나, 그대 내게 입 맞추지 않는다면?”이라는 구절이 포함된 시 「사랑의 철학」⁶¹⁾은 그의 낭만성을 잘 보여준다. 대표시집 『서풍의 노래』에 수록된 셸리의 시들에는 환상적이고 유동적인 이미지로 시적 영감을 극대화하면서⁶²⁾ 미

58) 이양하(1947h), p. 33.

59) 이양하(1947b), p. 104.

60) P. B. 셸리, 정광식 편역(1991),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 pp. 16-21.

61) P. B. 셸리, 김인성 편역(2001), 「사랑의 철학」, 『내 그대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민사, p. 159.

62) 셸리의 시론 「시의 변호」를 보면, 그는 자신의 시는 “언제나 불시에 나타났다가는 저절로 사라지는 — 사상과 감정의 덧없는 왕래”를 묘파하며, 시인으로서 자신은

를 생의 최고 가치로 여긴 인식이 드러나 있어 월터 페이터의 유티주의와의 친연성이 감지된다. 셸리의 시집을 번역한 강대건은 셸리 시의 서정성은 종달새, 구름, 서풍 등의 외적 대상이 아니라, 시인이 창조한 정신적 진실에서 발원한다고 설명한다. 셸리의 시는 시공을 초월한 정신적인 사물들 속에서 날쌔게 움직이는 환희와 황홀감, 거기서 일어난 서정을 본질로 하기에 ‘탐미적’이란 평가를 받아 왔는데,⁶³⁾ 1931년 최재서는 경성제대 영문과 졸업논문의 주제로 그러한 셸리의 시를 선택하였다.⁶⁴⁾

청년 이양하가 결핍과 고독으로 점철된 일본 유학 시기에 만난 문학적 출발점은 월터 페이터와 셸리의 탐미적이고 낭만적인 ‘시적’ 세계였다. 그가 1937년에 일어로 출간한 『랜더』도 그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ランドー』[W. S. Landor (1937), 겐큐사]는 그가 연희전문에 재직하던 시절에 사이토 타케시(齊藤勇), 사토 키요시(佐藤清) 등 일본 영문학계 대표자들이 총동원된 영미문학평전총서 시리즈 발간에 그가 유일한 조선인으로 참여해 출간한 평전이다.⁶⁵⁾ 이로써 그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랜더(1775-1864)를 최초로 일본에 소개한 사람이 되었다. 이양하는 1926년에 영국에서 발행된 I. A. 리처즈의 『시와 과학』을 1932년에 일역해서 일본 문단의 호평을 받았다. 즉, 그는 번역서 『시와 과학』과 평전 『ランド』로 일본 영문학계와 문단에 일찌감치 실력을 입증한 것이다. 『랜더』에서 그는 랜더가 낭만주의 시에서는 워즈워드, 바이런, 셸리, 콜리지 같은 동시대 일급 시인들에 못 미치지만, 산문에서는 특별한 존재임에 주목했다.

언제나 “현전하는, 감각할 수 있는 사물의 저편에 있는 어떤 것의 현현”을 본다고 적고 있다. P. B. 셸리, 「시의 변호」, 강대건(1991), 「비전의 시인」, P. B. 셸리, 강대건 역(1991), p. 155에서 재인용함.

63) 이런 셸리의 시들은 유동적이고 표묘(漂渺)하는 이미지로 순식간에 독자를 환상과 시적 감흥의 세계로 끌어들인다고 평가된다. 강대건(1991), p. 157.

64) 최재서의 졸업 논문은 「The Development of Shelley's Poetic Mind」이었다. 김윤식(1984), p. 219.

65) 배수찬(2010), p. 451.

이런 사실들은 그가 자신의 실력으로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영문학을 접했고, 또 관련 글을 쓰고 번역도 했으며, 시와 산문을 넘나들며 낭만적·유미적 문예에 탐닉했음을 말해준다.

이양하가 쓴 평전의 주인공 랜더(Walter Savage Landor)⁶⁶⁾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에, 이혼 경력을 있는 영국의 근대시인이자 산문가였다. 그는 서사시 『게비르』(Gebir, 1798)와 75세 생일에 쓴 시 「Dying Speech of an Old Philosopher」로 유명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세상은 잠시 앉아 곁불을 쬐고 가는 곳일 뿐, 누구든 불길에 사그라지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하기에 다행으로 낭비하기엔 이곳(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짧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는 이양하가 번역한 셸리의 시 「A lament 비탄(悲嘆)」과 주제가 동일하다. 이는 또한 그가 수필 「나무」에서 노래한 견인주의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주요 전언 가운데 하나인 “인간은 나뭇잎과 흡사한 것/가을바람이 낙엽을 휘몰아가면/봄은 새로운 잎으로 숲을 덮는다.”라는 호메로스 시구의 내용⁶⁷⁾과도 다르지 않다. 이양하는 「젊음은 이렇게 간다」에서 “너의 꽃다운 청춘 언제 또다시 올까 나!/영영 다시 아니 오리라/오오 영영 다시는!68)”이라는 시를 삽입해 놓았다. 즉, 청년기에 그가 좋아한 셸리나 랜더의 시, 월터 페이터의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에서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한 연설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짧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그가 당시 허무주의에 침윤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자전적 수필들에서도 당시 그는 매우 고독하고 메마른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려져 있다. 고행론은 당시 이양하는 시보다 수필을 더 좋아했지만, 수필에 한해서 그는 지성적이기

66) 랜더는 옥스퍼드대학에서 급진사상과 과격한 행동 때문에 정학 당했다. 이후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뒤 결혼했으나 곧 아내와도 헤어졌다.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매사에 충돌이 잦았다. https://en.wikipedia.org/wiki/Walter_Savage_Landor, 2019. 12. 13.

67) W. H. Pater, 이성호 역(1982c),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p. 89.

68) 이양하(1947b), p. 104.

보다 감각적이었다고 증언한다.⁶⁹⁾ 이 시기에 집중 창작된 자전적 수필들에서 그는 몹시 결핍되어 있고 또 감상적이기도 한데, 이는 개인사에서 연원한 우울한 정조와 페이터, 셸리, 랜더의 낭만적이고 유미적인 영문학의 세례가 보태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3. 명상적 수필에 나타난 고독과 모럴

1947년에 출간된 『이양하 수필집』에 수록된 이양하의 자전적 수필들에는 허무주의적이면서도 심미적 인식과 시적 세계에 열망, 또 지적 추구에 대한 강한 정열을 지닌 그로 성장해간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력과 성실성으로 유년기의 결핍과 성년기의 고독을 초극하고자 노력하였는바, 두 번째 수필집 『나무』의 표제작인 명상적 수필 「나무」에 이르게 된다. 거기엔 월터 페이터의 철학을 대변하는 마리우스의 변화와 I. A. 리처즈의 『시와 과학』, 베비트의 인본주의, 아우렐리우스의 철학 등이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락주의자 마리우스』에서 마리우스는 로마에서 어느 날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행차를 목격하고 황제의 연설도 듣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의 변모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우선 그는 황제에게서 외로움과 슬픔을 읽어냈고, 황제가 “정신을 위하여 신체를 희생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황제에게서 도덕적 진정성을 갖춘 온후평안(溫厚平安)한 자를 본 것이다. 마리우스는 인간은 “지구의 작은 존재로서 시체를 지고 무덤으로 기어가는 난쟁이에 불과”하지만, 모든 자연이 불평 없이 변화하듯, 인간은 스스로를 낮추고 늙음이나 죽음 등의 자연적 변화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황제의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이 당신을

69) 고흥근(1964), pp. 217-220.

괴롭히거든, 그것은 그것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없애버려라.”라는 황제의 연설은 기원전 2세기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주제가이기도 하였다.⁷⁰⁾ 월터 페이터는 이를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에서 마리우스가 황제로부터 듣는 연설로 축약해서 삽입해 놓은 것이다.⁷¹⁾ 월터 페이터는 『페이터의 산문』에서도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금욕주의」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장을 설정하여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이 자신의 사상적 입각점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그는 『페이터의 산문』의 서문에서 “자신이 구축한 예술의 창문을 통하여 인생을 관조하며 심미적 운둔생활을 한 빅토리아시대의 월터 호레이쇼 페이터”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자신을 3인칭화하여 이야기를 풀어 가는데, 어린 시절 당한 부친상 이야기를 필두로, 플라톤과 아우렐리우스로부터 자신이 받은 영향에 대한 이야기로 서술이 진행됨을 설명하고 있다.⁷²⁾

이양하가 제일 처음 접한 월터 페이터의 책은 『문예부흥』(The Renaissance)이었다.⁷³⁾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연구서인 이 책에서 페이터는 강렬하고 풍부한 인상의 미적 경험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허무주의적 심미주의 예술론을 역설하였다. 그는 인생 최고의 선(善)은 미(美)이며, 예술의 가장 훌륭한 임무는 황홀경의 미를 찾아내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플라톤과 괴테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은 페이터는 ‘감각적 방종’의 뉘앙스를 풍기는 오스카 와일드 류의 ‘쾌락주의자’(hedonist)와 자신을 구분하고, 또 자신이 부도덕함과 무관함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를 ‘유미주의자’(aesthete)라 칭하였다.⁷⁴⁾ 기실, 이양하는 교토제대 대학원 석사과정

70) M. 아우렐리우스, 노혜숙 역(2004), 『새로 읽는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세종서적, p. 48.

71) W. H. Pater, 이성호 역(1982c), p. 95.

72) W. H. Pater, 이성호 역(1982d), 「이 책을 읽는 분에게」, pp. 7-10.

73) 이양하(1939), p. 4.

에 다닐 때 페이터와 플라톤(Pater and Plato)을 전공했는데,⁷⁵⁾ 플라톤은 원래 모든 사상의 발전에는 윤리적 동기가 바탕을 이루며, 이성이 인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는 이성주의적 윤리학을 견지한 철학자였다. 즉, 청년기의 이양하는 월터 페이터를 통해 심미적 인식, 시적 질서인 미의 추구를 중시하는 심미적 문예관을 갖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아우렐리우스의 철학과 플라톤의 윤리감각 혹은 모럴의식의 중요성을 함께 습득해 간 것으로 보인다.

이양하가 청년기의 낭만과 고독, 감상과 우울에서 벗어나 절제를 실천하며 윤리감각을 회복하는 데에는 페이터뿐 아니라 그가 번역했던 I. A. 리처즈의 『시와 과학』도 도움이 되었다. 리처즈는 『시와 과학』에서 시 비평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윤리적 인간에 대한 지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그는 쾌락을 유발하는 충동이 삶의 동력이지만, 시란 그런 충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결국 문예는 충동적 인간을 도덕적으로 이끌어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결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⁶⁾

마리우스는 답답했던 고향을 떠나 피사(pisa)의 수사(修辭)학교로 유학을 온 뒤, 새로운 현실을 접하며 플라비안을 통해 형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다 플라비안이 죽은 뒤 그는 감각과 정서의 세련과 도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쾌락주의적 한때를 보냈다.⁷⁷⁾ 「순교자」편에서 청년 마리우스가 세실리아를 사랑한 연애사건이 그런 예이다.⁷⁸⁾ 한참 후 로마 궁정의 벼슬아치가 된 그는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통해 영구이성(永久理性)에 눈뜨게 되어 한동안 금욕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 지성의

74) W. H. Pater, 이성호 역(1982d), pp. 7-8.

75) 김윤식(1981), pp. 265-268.

76) I. A. Richards, 이국자 역(1983), 「가치 있는 것」, 『시와 과학』, 이삭, pp. 39-50.

77) 이양하, 김윤식 역(1982.1), 「페이터와 인본주의」, 『현대문학』 28권 1호, p. 291.

78) W. H. Pater, 이성호 역(1982e) 「순교자」, pp. 42-51.

도야와 의지의 조정을 관장하는 영구이성에 의지해 마음의 평화와 안식에 이르러야 한 것이다. 하지만 피사의 화려한 거리는 그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는 다시 로마에서 방황과 명상, 대화와 우정의 혼란기를 보낸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모두 맛본 그는 자신을 찾아온 코넬리우스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 귀의한다. 그는 코넬리우스를 위해 죽음으로써 순교자로서 최후를 맞고 참된 기독교인으로 장례된다.⁷⁹⁾ 이양하는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의 「마리우스의 죽음」 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페이터와 인본주의」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페이터와 인본주의」에는 이양하가 페이터의 사상에서 어떤 부분에 특히 공감하고 영향을 받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 논문은 제목이 상징하듯, 심미주의자 페이터와 인본주의자 베비트를 비교하는 구성인데, 이를 한글로 번역한 김윤식은 이양하가 베비트보다 페이터 쪽에 기울었음을 간파하였다.⁸⁰⁾ 이양하에 따르면, 페이터는 진실보다 미를, 의무의 수행보다 정서적 만족을, 행동보다는 관조와 향유를 중시하는 심미주의자이고, 베비트는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자였다. 베비트는 신적인 것, 자연적인 것에 비해 ‘인간적 수평’을 고평함으로써 인본주의를 견지했다.⁸¹⁾ 그런 베비트적 관점에 서면, 페이터는 ‘정서적 자연주의자’에 가까운데, 베비트는 그런 ‘정서적 자연주의자’들은 ‘기질적 자아’ 외에는 생활의 기준이 따로 없기에 이들에게는 ‘방만’(放漫)을 극복할 ‘높은 의지’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⁸²⁾ 이양하는 오늘의 혼란과 착잡함에 질서와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베비트식 인본주의가 필요하지만, 페

79) W. H. Pater, 이성호 역(1982f), 「마리우스의 죽음」, pp. 163-182.

80) 이양하, 김윤식 역(1982.1), pp. 294-295.

81) 베비트는 인간의 ‘수평’(plane)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인간이 충동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적 수평’, 인간이 의지력으로 충동과 욕망을 훈련하고 제어하여 절도와 중용을 실현하는 ‘인간적 수평’, 종교적으로 영원한 존재와 합일함으로써 평화에 도달하는 ‘종교적 수평’이 그것이다. 이양하, 김윤식 역(1982. 1.), p. 288.

82) 이양하, 김윤식 역(1982.1), p. 289.

이터는 감각이나 정서를 이성보다 낮은 것으로 경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세련되게 도야하는 것을 지적 계획으로 삼음을 고평하고 페이터에 편에 섰다. 베비트가 ‘내적 억제’로 억압과 욕망을 끊어 없애는 방식으로 윤리에 도달하고자 했다면, 페이터는 감각과 정서를 세련되게 도야함으로써 그것을 지적인 것, 신적인 것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양하는 예술적 요구에서 생겨난 페이터식의 ‘고행’은 세련과 선택에 중점을 둔 심미적인 것이라며 깊은 공감을 표하였고,⁸³⁾ 월터 페이터를 ‘결벽한 모랄리스트’로 고평하였다.⁸⁴⁾ 다시 말해 이양하는 페이터에게 있어서 심미적 실천은 고행이자 모랄이었고,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이해했다.

이양하가 20대에 쓴 「페이터와 인본주의」는 그가 남긴 최고 수준의 논문이다. 이 글이 중요한 것은 그가 산문양식인 수필에서, 특히 명상적 수필에서 시적 서술로 심미적 지향을 드러내고 모랄의 문제를 다루게 된 과정을 설명할 열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그는 월터 페이터에게서 심미주의적 인식뿐 아니라 명상적 수필의 미학적 방법론을 암시받고 있다. 마리우스가 감각과 정서의 세련을 추구하는 형상에 몰두했듯이, 그는 ‘시적 질서’인 아름다움(美)을 형상화하는 심미적 글쓰기로 자신만의 모랄을 제시한 시적인 수필 「나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단 「나무」를 보자.

(1) 나무는 德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分數에 滿足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厚薄과 不滿足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處地에 눈떠 보는 일도

83) 이양하, 김윤식 역(1982.1), pp. 294-295.

84) 이양하, 김윤식 역(1982.1), p. 286.

없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 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 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2) 나무는 孤獨하다. 나무는 모든 孤獨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孤獨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孤獨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孤獨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孤獨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쭉 앉는 한여름 대낮의 孤獨도 알고, 별 열고 돌우는 동짓날 한밤의 孤獨도 안다.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고독을 즐긴다.

(3)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 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義理있고 多情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以心傳心 意思가 잘 疏通되고 아주 脾胃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잡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 올 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쏘삭쏘삭 알랑대고 어떤 때에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에는 공연히 뒤틀러 우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 놓고 달아난다. 새 亦是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亦是 自己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自己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둥지를 틀고 지켰을 때 찾아 와 쉬며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厚待하고 새와 바람을 薄待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對한다. 그리고 친구가 오면 多幸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不幸해 하는 법이 없다. 같은 나무 이웃 나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나무는 서로 속속들이 理解하는 眞心으로 同情하고 共感한다.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기쁘고 一生을 이웃하고 살아도 싫증하지 않는 참다운 친구다. 그러나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 즐긴다느니보다는 제各其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치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더 힘을 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讚頌하고 默禱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길래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있다. 그리고 온갖 나무 잎이 육은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殿堂에 들어선 것처럼 엄숙하고 敬虔한 마음으로 自然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讚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理由도 여기 있다.

(4)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天命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는 自己所用 닿는 대로 가치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고 한다. 나무는 그래도 怨望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리어 그들의 願대로 키워지고 베어 간 材木이 혹 자갈 훔칠 도끼 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堅忍主義者요, 孤獨의 哲人이요, 安分知足의 賢人이다. 佛敎의 所謂 輪回說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5)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⁸⁵⁾

「나무」의 전문을, 편의상 단락별로 번호를 붙여 옮긴 위의 인용문에서 (1)은 나무가 지닌 ‘안분지족’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2)와 (3)은 나무의 ‘고독’을 이야기한다. 나무는 고독하고, 고독을 알고, 고독을 견디고, 고독과 싸워 이기며, 끝내 고독을 즐기는 존재다. 그런데 고독은 그 자체만으로 덕(德)일 수 없다. 고독을 즐기는 것도 덕(德)으로 보긴 어렵다. (3)에서 나무는 친구가 다양하고 많지만, 여전히 고독하다. 친구를 대하는 나무의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다. “오는 벗 안 말리고, 가는 벗 안 잡는다.”는 태도다.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를 즐기지도 않는다. 그저 각자 제 일에 매진함으로써 숲은 자연히 우거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경건과 엄숙

85) 이양하(1964), 「나무」, 『나무』, pp. 14-16.

을 느낄 것이라 한다. (4)에서 나무는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이라 말하고 있다. 해서 나무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을 유추해 보면, 이는 ‘더 많은 열매 맺기’이다. 나무의 두 번째 소원, 즉 ‘하나 더 원하는 것’은 죽어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유기체가 죽어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4)에서 나무는 해코지를 당해도 이렇다 말을 하지 않는다. 즉, 말하지 않음이 나무를 훌륭한 ‘견인주의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이다. 이로써 「나무」에 제시된 나무의 덕은 (1)의 ‘안분지족’과 (4)의 ‘말(불평)하지 않기’ 두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소극적인 ‘모랄’이라 할 수 있다. 「나무」에서 나무는 열매나 그늘, 그루터기를 주는 존재, 즉 무언가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해코지를 당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나무인 것이다. 다만 이 나무는 그것에 불평을 하지 않는 미덕을 가졌다. (1)에서의 ‘안분지족의 덕’도 마찬가지로 가지이다. 나무는 자신이 어디에 심겨져 있든, 불평하지 않는다. 진달래로 태어났든, 소나무로 태어났든, 불평하지 않는다. 결국 이 작품에서 말하는 나무의 덕은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대해 일체의 불평을 하지 않음’이란 한 가지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필 「나무」는 본문에 ‘안분지족’(安分知足)이나 ‘견인주의’(堅忍主義)란 키워드가 노출되어 있어 더 이상의 해석을 요하지 않는 작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재독해 본 결과, 나무의 미덕인 ‘안분지족’과 ‘견인주의’의 실제 내용은 ‘불평하지 않음’, 혹은 ‘말이 없음’이었다. 「나무」는 이양하가 글로 쓴 자화상으로도 읽힌다. 아내 장영숙은 그가 워낙 말수가 적어 그와의 결혼생활은 “無人島처럼 잔잔했다.”라고 말하고 있고,⁸⁶⁾ 지인들도 그가 매우 어눌하고⁸⁷⁾ 말수가 적고⁸⁸⁾ 고독한 사람이었다

86) 장영숙(1994), p. 3.

87) 이군철(1964), 「실행록」, 『추념문집』, p. 198.

88) 유령(1964), 「시인으로서의 이선생」, 『추념문집』, p. 223.

고 증언하고 있는데, 「나무」에서 이양하는 ‘나무’라는 자연물을 빌어 말 없고 고독한 자신의 이미지에 ‘시적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자신을 심미화한, 나르시시즘적 자기예찬의 뉘앙스도 다소간 읽힌다.

첫 번째 수필집의 대표작인 「신록예찬」에서 그는 ‘소박하고 겸허한 빛’인 신록을 마주하면 마음이 무념무상(無念無想), 무장무애(無障無礙)에 이르고 “무한한 풍부의 유열과 평화”를 느끼게 된다고 말하였다.⁸⁹⁾ 교정을 거닌 에피소드가 등장하지만, 이 작품도 「나무」와 같이 ‘시적’ 세계를 담은 명상적 수필인데, 특히 여기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이는 자연과 ‘오욕칠정’(五慾七情)에 사로잡힌 ‘비소’(卑小)하고 ‘저속’(低俗)한 ‘오점 혹은 잡음’에 불과한 인간이 대비되어 있다.⁹⁰⁾ 즉, 이 작품에는 그의 긍정적인 자연관과 부정적인 인간관이 잘 드러나 있고, 그 바탕에는 폐시미즘(pessimism)이 감지된다. 그가 신록 혹은 자연을 예찬하는 이유가 자연이 그를 “모든 오욕과 모든 음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신록예찬」에서 이양하의 고독 예찬은 결국 부정적인 현실과 타인으로부터 어떤 억압도 받지 않고 자유롭기를 갈망함, 다시 말해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 말한 ‘소극적 자유’의 추구에 해당한다.⁹¹⁾ 벌린은 개인은 간섭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을 때에만 자유롭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자유론을 펼치면서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강제가 없는 상태, 타자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불간섭의 자유’를 말하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본래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전자가 ‘~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라면, 후자는 ‘~로의 자유’(freedom to)이다.⁹²⁾ 즉, 「신록예찬」의 고

89) 이양하(1947j), 「신록예찬」, 『전집』, pp. 84-87.

90) 이양하(1947j), p. 86.

91) 대산문화재단·민족문학작가회의 공편(2004), 「현실로부터 거리 두기 — 이양하」,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세미나 자료집, p. 18.

독예찬은 ‘소극적 자유’의 추구로서, 바탕에는 염세(厭世)적 세계관이 깔려 있다.

1945년 경성제대로 자리를 옮긴 후 이양하는 특히 전공분야에서 견인주의적 성실성을 다하였다. 연희전문 시절, 수필창작을 우선시하면서 영문학 관련 소소한 평론들을 썼던 그는 서울대 재직시절,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자하여 장성언, 마틴과 함께 1902페이지에 달하는 『한미대사전』(민중서관, 1968)을 만드는 등, 지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또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였다. 전공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후, 창작의 영역인 수필쓰기에서 그는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자유’인 ‘고독’과 그 완벽한 환경으로서 ‘자연’에 대한 갈망을 심미적인 서술에 담아냈다. 이는 지식인이 아닌, 전문직업인의 차원에서 그가 도달한 일종의 새로운 ‘모럴’의 제시로 볼 수 있다. 소극적 자유의 보장을 도덕적 가치로 미화한 것은 인간의 의지적 행위들 상호 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윤리철학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⁹³⁾

4. 닫는 말: 감상에서 모럴로, 이양하의 수필의 변모

이양하 수필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극찬과 비판을 오갔다.⁹⁴⁾ 이런 현상은 일차적으로 평론을 포함한 그의 수필세계가 서구의 다양한 문예이론가와 철학자들로부터 고루 영향을 받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고, 자전적

92) 이샤야 벌린, 박동천 역(2014), 「자유 의 두 개념」, 『이샤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pp. 343-344.

93) 토마스 아퀴나스, 박승찬(2010. 7.), 「인간적 행위들 상호 간의 질서」, 『인간연구』 19, pp. 312-315.

94) 이양하에 관해 여러 편의 글을 쓴 김윤식도 수필을 주로 논한 초기에는 매우 비판적이다가 영문학 논문을 포함한 나중 글들에서는 그런 입장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수필, 명상적 수필, 계몽적 수필로 구성된 그의 수필들 간에는 단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의 수필에 한정하여, 특히 해방 이전에 주로 쓴 자전적 수필들에서 해방 이후의 명상적 수필들로 이행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이들 간의 낙차를 연속성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영문학에서 받은 영향들에 주목하였다.

이양하의 자전적 수필들에는 결핍으로 점철된 우울한 유년기와 고독한 유학시절의 감상적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모성을 체험하지 못한 데에서 연원한 결핍감과 초혼 실패 이후 10대 후반부터 재혼(만 53세, 1957년)할 때까지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외롭게 지낸 데에서 체질이 된 ‘고독’은 이후 부정적 인간관과 현실인식으로 이어져 결국 명상적 수필들에서 현실(인간)과의 거리두기로서 자연과 고독을 예찬하는 데로 나아간다. 필자는 그가 자전적 수필들에서 보인 우울과 결핍, 고독으로 얼룩진 청년기의 늙어서 벗어나, 심미적 사유를 시적인 문장에 풀어낸 명상적 수필의 세계로 나아가, 운명적 키워드인 ‘고독’을 끝내 ‘자유’라는 ‘모럴’의 차원으로 승격시킨 것을 일종의 발전으로 본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먼저 길을 터준 것은 월터 페이터의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와 I. A. 리처즈의 『시와 과학』에서 선취한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문예관이었다. 『쾌락주의자 마리우스』는 청년 마리우스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이양하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거기 수록된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월터 페이터의 사상적 토대이자, 그의 대표작 「나무」의 철학이 되었고, 그의 삶의 모럴이 되었다. 그는 리처즈의 시론도 시를 비롯한 문예가 인간 충동의 조절이란 차원에서 윤리적 역할을 수행함을 간파하여 이 부분을 강조해서 소개하였다. 그가 특히 산문양식인 수필을 자신만의 시적이고 심미적인 수필로 변용한 데에는 페이터의 문예론으로부터 받은 암시가 주효했다.

이런 영문학의 영향 외에도 그가 스스로의 지력과 성실성으로 이룬 전공영역에서의 값진 성취들은 이런 변화를 추동하는 현실적인 힘이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공영역에서 일찌감치 남다른 성취를 거뒀다. 20대에 I. A. 리처즈의 『시와 과학』을 번역했고, 30대 초반에 『랜더』라는 평전을 써서 일본 영문학계와 조선문단에 실력을 입증했다. 덕분에 그는 30세에 연희전문 교수, 40대 초반에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 해방 후엔 영한사전, 한영사전을 집필하고 편찬하여 학자적 능력과 성실성을 또 한번 입증했다. 그가 했던 문예이론서 번역이나 평전쓰기, 사전편찬 등은 매우 수고로운 과정이 포함된 작업들로, 학자로서도 견인주의적인 실천에 해당하는 일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성취들에서 그는 학자적 책무를 다했다는 자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영문과 교수로 30년간 봉직한 그에게 수필창작은 일종의 여기(餘技)였을 것이다. 학자로서 소임을 다한 그는 「신록예찬」과 「나무」에서처럼, 현실이나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자연에 거하며 ‘홀로 있음’을 ‘즐김’으로 써 완성될 수 있는 ‘고독’, 즉 ‘소극적 자유’를 갈망하였다. 거기에 머물면 견인주의조차 필요치 않는 상태, 즉 진정한 ‘자유’ 혹은 ‘고독’에 이를 수 있기에 그는 자연을 예찬하였다. 따라서 그의 고독은 이사야 별린이 말한 ‘~으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에 해당하는 가치로 볼 수 있다. 이양하는 심미적 글인 시적이고 명상적인 수필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심미적 상태인 ‘고독’ 혹은 ‘자유’에 머무르고자 한 것이다. 이는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도 전공분야에서 남다른 성취를 이룬 그가 주창한 새로운 하나의 ‘모럴’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자 료】

- 이양하, 김춘식 편(2017), 『이양하 수필 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_____, 송명희 편(2009), 『이양하 수필 전집』, 현대문학사.
_____(1994), 『이양하 수필선』, 을유문화사.
_____(1933), 김윤식 역(1982), 「페이터와 인본주의」, 『현대문학』 28 (1).
_____(1978), 『이양하 미수록 수필선』, 중앙일보사.
_____, 정병조 편(1964), 『이양하 교수 추념문집』, 민중서관.
_____(1964), 『이양하 제2 수필집 — 나무』, 민중서관.
_____(1962), 『마음과 풍경』, 민중서관.
_____(1947), 『이양하 수필집』, 을유문화사.
_____(1939), 「외국문학 전공의 변(10): 페이터의 문예부흥」, 『동아일보』, 1939. 11. 18.

【논 저】

- 김우창(1984), 「이양하의 수필세계」, 『수필공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1984.
김윤식(2008), 「이양하와 김기림: 제국대학 영문학의 직계적 상상력과 방계적 상상력」, 『문학의 문학』 제5호, 2008년 가을호.
_____(1985), 「이양하의 외로움과 예고이즘」, 『작은 생각의 집짓기』, 나남.
_____(1984), 「경성제대 영문학과와 낭만주의」,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1』, 일지사.
_____(1981), 「이양하의 페이터와 인본주의 소개」, 『동아일보』, 1981. 12. 19.
_____(1981), 「이양하 론」, 『(속)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_____(1978), 「고독과 예고이즘: 혼의 형식과 음악의 형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김진희(2017), 「일본 『영문학연구』에 실린 이양하의 첫 비평: 이양하, 「비평소개: 工藤好美(역), 『ウォオルター・ペイター단편집』, 『영문학연구』 제11권 2호, 1931.4」, 『계간 서정 시학』 27-3.
대산문화재단·민족문학작가회의 공편(2004), 「현실로부터 거리 두기: 이양

- 하],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세미나 자료집.
- 리처즈, I. A. 이국자 역(1983), 『시와 과학』, 이삭.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노혜숙 역(2004), 『새로 읽는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황제의 철학』, 세종서적.
- 셀리, P. B., 강대건 역(1991), 『시인의 꿈』, 민음사.
- _____, 김인성 편역(2001), 『내 그대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민사.
- _____, 정광식 편역(1994), 『서풍의 노래』, 선영사.
- 이사야 별린, 박동천 역(2014), 『이사야 별린의 자유론』, 아카넷.
- 이진숙(2018),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윤리를 통한 자기 성찰 교육의 가능성 모색」, 『사고와 표현』 11(2).
- 임중빈(1976), 「이양하 론」, 『신록예찬』, 범우사.
- 정부래(1991), 「이양하 수필 연구」, 『청어람문학』 4호.
- 정진숙(1997), 『을유문화사 50년사』, 을유문화사.
- 정태귀(2008), 「이양하 수필의 토포필리아 연구」, 부경대 석사논문.
- 토마스 아퀴나스, 박승찬 역(2010.7), 「인간적 행위들 상호 간의 질서」, 『인간 연구』 19.
- 페이터, W. H., 이성호 역(1982), 『페이터의 산문』, 범우사.

원고 접수일: 2020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0년 2월 12일

ABSTRACT

A Study on the Essays Written by Lee Yang-ha

Kim, Mee 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how to develop the self essays to the meditation essays by Lee Yang-ha. Lee Yang-ha specialized in English literature and so it is possible that his essays were influenced by Walter Pater, P. B. Shelley, W. S. Landor, I. A. Richards, Irving Babbitt, and Marcus Aurelius etc. His essays were marked by big gaps and heterogeneities, which is why they received contrary reviews from many critics. An entire outline of his essays has yet to be figured out. In his essays based on his autobiography, we could know that Lee Yang-ha's Inner mind were full of the lack of affection and the solitary in his adolescent years. On the other hand, he was successful as a scholar of English literature and had high intellectual power and sincerity. His masterpieces, "The admiration of tender green" and "Tree", focus on his deep solitaries. These were composed under the influence of Walter Pater's aesthetics, and so his prose differs from the prosaic style but in verse style. The theme of both works focused on 'solitary', meaning the 'Negative Liberty' of Isaiah Berlin. The subject's appearance was expressed as 'enjoying solitary' but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Hongik University

Lee Yang-ha has eagerly longed for freedom from intervention. In accordance with Isaiah Berlin's *Liberty*, this 'Negative Liberty' can be approached as the absence of interference. Lee Yang-ha had experienced negative perceptions of humans and realities. Therefore, he may have written his meditation essays using the concept of solidity which meant 'Negative Liberty' as the morality.

